

광양 '청년이 꿈 이루는 희망도시' 만든다

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취업·창업·창의공간 조성 등 청년정책 적극 발굴키로

광양시가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정책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청년이 꿈 이루는 희망도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추진예정인 청년정책 사업을 논의했다.

민선7기 이후 첫 개최된 이번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영배 위원, 최대원 위원 등 위촉위원 14명을 포함한 총 19명의 청년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신항진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보고, 임재기 전략정책담당관의 2019년 10대 중점 시책보고, 청년정책 사업 논의와 의견수렴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문제가 일 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청년정책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들은 청년창업과 관련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창업자를 위한 사업 추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관련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청년취업·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청년참여와 관련해 청년 창의공간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생모임과 소규모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단체나 청년이 청년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당부했다.

특히 광양시 청년 창의공간 조성 설계과 정부 청년을 참여시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이 되어야 혜택으로 돌아오는 국민연금보다 현재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때 다양한 직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대표성 확보하고 청년 지원 사업에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청년정책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시는 지역 청년단체와 함께 출퇴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들이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0일 열린 거리 캠페인에는 광양시 청년연합회를 중심으로 광양JC, 동광양JC, 행동하는 양심청년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년희망 행복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 지역 주소값기 운동', '지역 농산물 애용' 등을 홍보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청년 구직, 결혼과 같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지만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결혼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서영배·최대원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진예정인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청년인구 비율 28.6%로 최고

광양시가 청년 인구 비율이 30%대에 달해 전남 지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조사됐다.

1일 광양시가 작성한 '광양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만19~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4만4499명으로 광양시 총인구의 28.6%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남의 청년 인구 비율 23.4%보다 5.2% 포인트(p) 높다.

'미혼'이 55.2%를 차지했고 '기혼'은 42.9%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은 '남성' 32.7세, '여성' 29.6세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광양시 청년 취업자는 2만2000명, 청년 고용률은 61.0%다.

청년 사업등록자는 청년 인구 4만4499명 중 3297명으로 7.4%를 차지했다.

광양시 청년들의 진로인원 중 만성질환은 신경계 질환, 주요 암은 갑상선암, 환경성질환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3월 맞춤형 통계 개발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하고 청년통계를 작성했다. 이번 청년 통계 결과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초남산단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탄력

국비 33억원 추가 확보 잔여 부지 매입 나서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읍 초남일반산단 내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국비 추가 확보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비 33억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잔여 부지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올해 국비 18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4월부터 46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8038㎡를 매입했다.

특히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전체사업비 165억원 중 절반인 83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토지보상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체부지의 75%인 3만1324㎡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 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토지 보상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광양읍 초남일반산단 내(초남리 763-5번지 일원) 4만5695㎡ 부지에 39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되는 공영차고지에는 주차장, 관리동, 정비동, 휴게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광양읍권의 주택가 등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운전자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어린이집 10곳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지정

광양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어린이집 10개소를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열린어린이집은 구조나 운영적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부모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를 말한다.

특히 어린이집 공간을 부모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운영위원회와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부모참여를 확대했다.

시는 올해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위해 신청 받은 15개소를 대상으로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우수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열린어린이집 관련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선정했다.

지정된 어린이집으로는 광양읍 '용강어린이집' 1개소, 옥곡면 '낙원', '크레용' 등 2개소, 중마동은 '키즈하버드', '동그라미', '하늘꿈', '세종', '꿈나무', '해맑은', '광양근로복지공단' 등 7개소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각종 포상과 정부지원 우선선정, 모니터링 일정기간 제외, 민간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는 이번에 지자체형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10개소 중에서 2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중앙도서관 '영화로 만나는 삶과 인문학'

복합문화공간 '하루'서 5~26일

광양중앙도서관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새롭게 단장한 복합문화공간 '하루' (별관 1층)에서 '영화로 만나는 삶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의는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이자 '모든 순간의 인문학', '이토록 영화같은 당신', '가장 좋은 사랑은 아직 오지 않았다' 등의 저서를 집필한 한귀은 작가가 함께 총 4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첫날인 11월 5일에는 '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주제로 영화 '다가오는 것들', '리스본행 야간열차', '경주'를 통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회차인 12일에는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영화 '그녀', '당신과 함께 한 순간들'을 상영하며 현재와 미래 세계를 상상해 본다.

3회차인 19일에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영화 '보이후드', '미라클 벨리에'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성찰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인 26일에는 '이번 생, 반복해도 좋은가'라는 주제로 영화 '여름의 조각들', '아무르', '마지막 사중주'를 통해 운명과 죽음에 관해 통찰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wangyang.go.kr) 또는 전화(061-797-3853)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 9월 기존의 어린이실을 리모델링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LP자료부터 DVD 자료, 음악CD, 오디오북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자료들을 비치한 복합문화공간 '하루'를 개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18 중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영화로 만나는 삶과 인문학

1월 5일 : 2018. 11. 5. ~ 11. 26. (일 4회)
 운영시간 : 매주 월요일 19:00 ~ 21:00
 장소 : 문화공간 '하루' (별관 1층)
 강사 : 한귀은(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회차	영화	주제
1	'다가오는 것들', '리스본행 야간열차', '경주'	생의 결정적인 순간
2	'그녀', '당신과 함께 한 순간들', '미라클 벨리에'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3	'보이후드', '미라클 벨리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4	'여름의 조각들', '아무르', '마지막 사중주'	이번 생, 반복해도 좋은가

광양시립중앙도서관

광양만권 조합회의 신임 의장에 김길용 전남도의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신임 의장에 김길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사천), 부의장에 이정훈 경남도의원(자유한국당·하동)이 각각 선출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최근 제100회 정례회를 열고 김 의장 등 신임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회의는 전남도 7명, 경남도 3명, 산업부 1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 업무 점검과 2018년도

울촌산단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신임 의장은 "조합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결집시키고, 김갑섭 청장을 비롯한

광양경제청 집행부와 소통·협력해 광양만권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얼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10.3) 우리의 개국일은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이 겹치기때문에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 목포교육지원청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세한대학교
- 초당대학교
- 신안교육지원청
- 목포기톨릭대학교
- 동아보건대학교
- 한국학원 목포시총연합회
-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
- 목포과학대학교